

제6회 저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프리뷰 (4)

16. PV 에서 인기있는 텍스타일도

日本毛織(大阪府)은 3 월의 프리미에 비종(PV)에 제안하여 호평을 받았던 빈테이지 시리즈라든가 최고급 메리노 울 마프(MAF) 등을 제안한다.

빈테이지 시리즈는 1880~1930 년대의 텍스타일을 제한 없이 당시의 원료나 설계로 재현하기도 하고 현대풍으로 어렌지하기도 하여 日本毛織 독자의 맛을 내고 있다. 지난 전시회에는 트위드나 고밀도 직물을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레이온과 리넨을 복합하여 드라이 터치의 슈퍼 에어로 코튼/리넨 등을 내놓는다.

마프는 뉴질랜드산의 엑스트라 슈퍼 파인 메리노 울을 사용한 최고급 울이다. 이번 전시에는 150 수 단사에 의한 시폰 조켓이라든가 거즈 등을 우직 감각의 아이템용으로 제안한다. 이 외에 실크/울 혼용 180 수 단사의 이중직이나 거즈 등도 있다.

小松和(東京都)의 제 2 사업부는 이번 JC 프리뷰가 첫 출전이다. 동사는 면을 중심으로 천연 섬유를 주력으로 기획 개발한 오리지널 텍스타일을 아동복용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동복용으로 만들어진 유연한 면 소재가 평가되어 요즈음은 여성복이라든가 신사복 어패럴의 채용이 늘고 있다.

프리뷰에서는 여성복이나 신사복 분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상품은 안료 시리즈라든가 표면 변화 시리즈 등이다. 동사는 금년에 창업 50 주년을 맞이하는데, 예로부터 안료를 사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정평이 있다. 캐주얼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안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프리뷰전에서도 화제를 부를듯하다. 표면 변화 시리즈는 상황에 맞는 가격 설정을 하기 위하여 코드 클로스나 파나마 등 표면 변화가 있는 생지를 중국에서 생산, 일본에서 후가공 한 것이다.

날염 공장인 大景(京都府)도 이번이 첫 출전이다. 오토 스크린에 의한 프린트를 베이스로 고급 복지용으로 우수한 가공을 하고 있다. 자판은 하지 않고 동사의 다양한 후가공을 소개하여 수주 확대에 이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출전하는 것은 오팔 가공이나 그리터 프린트, 박(箔) 전사 프린트, 방발염 등이다. 박(箔)전사 프린트는 후도를 갖게 하고 색이 부여된 박(箔)을 프린트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션 프린트는 하이 메시 스크린을 사용하여 매우 가는 선에 의한 섬세한 프린트를 가능하게 한다.

西村庄治商店(京都府)은 일본조의 원단을 전문으로 다루는 복지 콘버터이다. 레이온 지리멘의 일본조의 프린트를 잡화라든가 인형 분야에 전개하고 있었으나 저팬 크리에이션(JC)에 출전하게 된 이후 캐주얼로부터 미세즈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어패럴이나 백, 수예점 등 시장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 잡화나 T셔츠, 백 등 2차 제품의 OEM도 행한다.

프리뷰전에는 이번이 첫 출전이다. 제안하는 것은 일본 문양의 데님 자카드, 클래식 벨루어의 일본 문양 프린트, 데님의 우선풍(友禪風) 프린트, 레이온 지리멘의 일본 문양 프린트 등이다. 동사는 원래 본건인 직물상으로 창고에 약 100년 전의 원단 샘플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원단을 폴리에스터로 재현한 ‘復刻版古代名物裂’도 10 문양 출품한다.

17. 전통 기술을 독자 기획으로 승화

藤本商店(石川縣)은 실크 직물의 산지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내에 생산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협력 공장을 통하여 제작하고 염색 기술에 관해서도 충분한 노하우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 출전은 실크 관련 기획을 전면적으로 내놓는다. 기술적으로 곤란한 폴리에스터와 조합한 요루 원단 등, 고품위 존으로 특화된 제안을 한다.

지금까지 출전하여 여성 어패럴에 판로를 넓히는 등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적게 된 실크를 사용한 독자성이 높은 텍스타일 제안으로 시장에는 없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존재감을 나타낸다.

井脇織物(和歌山縣)은 이번이 첫 참가가 된다. 지금까지 침장, 의류 니트 원단, 스포츠용 원단, 주생활 관련용 등 다양한 생산을 하여 왔다. 이번 전시회는 메리야스 자카드 원단을 중심으로 한 제안으로 독자성을 강조한다.

자카드로 모티브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직물 표면에 변화를 주어 요철감이 있는 표면 변화를 나타낸다. 소로트 대응에 의한 대응력도 소구 포인트이다.

그 외에 아우터 의류용으로 두꺼운 원단도 여러 점 준비하는 등 어패럴용 기술

력과 상품 기획을 어필한다. 판로 확대에 이어진다.

備纖工業(廣島縣)은 면, 마, 레이온 등 천연 섬유를 중심으로 특수한 염색을 하여 기술에서의 차별화를 강조,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자사에서 축적하여 온 기술을 살려서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시작한 것은 약 6년 전부터이다. 墨染, 柿渉染(감물 염색) 등 특수한 염색을 캐주얼 의류 등에 나타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가지고 올 ‘柿渉染을 한 雷 주름 가공’은 柿渉染과 수세 가공을 조합하여 문질러 댄에 의하여 독특한 의장, 柿渉染이 가지는 색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가방이나 일부의 의류에 채용한 실적이 있다. 이번 전시회의 출전에서라도 희소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기획으로써 확대 판매한다.

旭陽産業(福井縣)은 산지에서 오리지널 기획한 텍스타일을 내 놓는다. 사 가공 공장, 연사 업자, 제직 업체 등 지금까지 오랫동안 배양되어 온 北陸 산지의 종합력을 살려서 화섬과 천연 섬유의 조합 제안을 중심으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사에 천연 섬유, 위사에 스트레치사, 면/텐셀 복합, 나일론 강연사 등 실의 단계에서 기획한 부가가치가 높은 교직 원단 샘플을 다수 내 놓는다. 최종 유저인 어패럴에 대한 판매 확대용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한다.

18. 새로운 시스템으로써 제안 정밀도를 높인다

오가와 텍스타일(愛知縣)은 양모를 주체로 하는 여성복지의 기획, 제조, 판매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가오는 봄용으로 팬시 트위드계를 메인으로 내 놓는다.

페루나 중국, 인도 등에서 구매한 면을 베이스로 오리지널 실로부터 텍스타일을 개발, 어패럴이나 도매상의 다양한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폭 넓은 스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JC 프리뷰 전시회 참가는 4 번째이다. 지금까지 매 회 도매상이나 어패럴 등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전시회 출전의 대응은 크다. 특히 동경에서 거래선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중 동경 시장에서의 확대를 도모한다.

이와나카(岐阜縣)는 천연, 합섬, 복합, 직물로부터 니트, 패브릭으로부터 제품 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변화를 전개하고 있다.

동사는 4월 중순의 06 춘하 전시회에서 바 코드를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자사에서 개발 도입하였다. 전시하는 원단 모두에 바 코드를 부여하여 상담하면서

샘플 의뢰 등을 그곳에서 입력하여 전시회의 인기 순위가 그날 판명된다.

이번 전시회 JC 프리뷰에서는 초점사 ‘OJO+’를 사용한 직물이라든가 니트, 타스마니아 체브를 사용한 섬머 트위드, 스테인레스 섬유를 혼용한 니트 등, 순위 상위의 소재를 메인으로 내 놓는다. OJO+ 라든가 40 마이크론의 극세 스테인레스 섬유의 사용은 내추럴한 주름감이 호평이다.

이들을 베이스로 고객선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텍스타일의 별도 주문 대응이라든가 OEM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제안하여 간다.

오야과일(和歌山縣)은 트윌 직 · 편기라든가 하이과일기, 랫셀기를 구사한 과일 패브릭의 종합 메이커이다. 다채로운 후가공을 실시하여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용이하게 만들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소재를 제안한다.

수지 코팅이나 롤러에 브러시를 붙여 밍크조의 표면감을 갖게 하는 것, 레이온 트윌의 형 부여 가공에 의한 아스트라간(아스트라간 지방의 특산인 권모의 새끼 양)조 등 고급감을 소구하였다.

이들은 반대로 중국 어패럴로부터 발주가 있어 첫 전시회의 출하를 끝냈다. 제품은 중국의 고소득자 층의 내수와 유럽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프리뷰전에서는 도매상이나 어패럴에서의 신규 획득과 더불어 자재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도모한다.

19. Only One 상품 목표

선염 직물의 가공 공장인 播州織工業協同組合(兵庫縣)은 텍스타일의 자판에 힘을 주고 있고 JC 프리뷰전 등을 활용한 수주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 상품은 크래시 가공과 播州의 야타라(멧대로)이다.

크래시 가공은 동 조합과 兵庫縣立工業技術센터 섬유공업기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제직과 가공 기술을 조합하여 위사에 물결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써 물결의 간격이나 대소로써 다양한 모양이 가능하다. 2004 년 12 월의 저팬 크리에이션(JC)에서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JC에서는 면 100% 소재를 중심으로 출전하였으나 이번 전시회에는 실크나 양모, 폴리에스터 등과의 복합소재도 전시한다.

播州의 야타라는 가차만 시대의 야타라 무늬를 약 반 세기만에 부활하였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일반적인 播州織과는 달리 모양의 재현성이 없는 것이 특징

이다. 지난 전시회에서는 셔츠감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번 전시회는 10 수에서 40 수까지로 후지 직물도 개발하였다. 용도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수발텍스타일(大阪府)은 1990년 5월에 그때까지의 ‘辻메리야스 공장’을 현재 이름으로 변경과 동시에 어패럴 직판을 시작하였다. 동사는 환편기를 32대 보유하고 있다. 각각 다른 타입의 기종이기 때문에 소로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써 1필부터 수주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100% 면 120수 쌍사를 사용한 32게이지의 스무스, 36게이지의 벨루어 등 박지의 컷 소 원단을 제안한다. 동 스무스는 실켓 가공한 후에 바이오 가공을 실시하고 있다. 발색성이 우수하고 소프트하고 드레이프성이 있다. 벨루어는 종래 28게이지까지는 있었으나 32게이지 박지는 드물다.

동사는 수입품으로 흉내낼 수 없는 Only one의 물건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난번 프리뷰 전시회에서도 호평이었다. 대형 어패럴의 브랜드만이 아니라 소규모이지만 독자의 패션성을 살려 가고 있는 SPA 어패럴과의 거래를 확대하고 싶다고 한다.

王子파이버(東京都)는 지금까지 후염 직물을 중심으로 제안하여 왔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환편이나 횡편 니트의 제안을 강화한다. 또, 모 변수 50수까지 리즈너블한 가격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이번 전시회의 가장 확고 부동한 상품의 하나이다.

동사의 천연 종이사 섬유 ‘OJO+(오조)’ 저지는 종래 면 교편에 의한 18게이지까지였다. 이번 전시회는 새롭게 24게이지까지 개발하였다. 아우터로부터 이너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컷 소로 전개가 가능하다. 모 변수로 40수가 중심이었으나 새롭게 50수도 개발함으로써 제직, 편성 모두 상품의 폭을 넓히고 있다.

熊澤商社(福井縣)는 트리아세테이트를 중심으로 한 텍스타일을 상품 개발하고 있는 산지 상사로써 프리뷰전은 이번이 첫 출전이다. 여성 아우터 분야의 개척을 목표로 한다. 자사 콘버팅 상품과三菱레이온의 출품을 절반 비율로 제안할 예정이다.

주력인 자사의 콘버팅 상품은 ‘실프리에’, ‘소아론 플러스 α’, ‘소아론 플러스 β’ 등이다. ‘실프리에’는 동사의 주력 상품으로써 트리아세테이트와 실크의 복합 직물이다. 이번 전시회는 새롭게 폴리우레탄 혼용에 의한 스트레치 제품을 내놓는다. ‘소아론 플러스 α’는三菱레이온의 폴리에스터 혼용한 ‘미션’과 면의 복합이

다. ‘소아론 플러스β’는 ‘미션’과 양모의 복합이다. 모두 80 수의 세번수로 전개한다.

20. 전통의 기술, 최신 기획으로 승화

内藤 레이스(京都府)는 1963 년부터 레이스로 특화한 기획 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당초에는 이불이나 베갯잇 등 주거 생활에 관련된 레이스 판매를 하여 왔으나 현재의 상품은 의류 요도가 중심이다. 레이스 원단이기 때문에 여성 이너 용도가 주가 되는데, 일부에서 얇은 재킷에 채용되는 경우가 나오는 등 서서히 판로도 넓어지고 있다.

동사는 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은 협력 공장에서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사 주도로 기획하여 내놓은 것은 10년 정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사내에 디자이너가 상주하여 판매전에 디자인을 결정하는 등 기동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디자인을 사내에서 행함으로써 납기도 단축된다. 더욱이 최근에 협력 공장에 의하여 봉제에 이르기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상품의 폭이 넓어졌다.

프리미에르 비종 등 해외의 최신 트렌드를 의식한 제품 기획을 하고 있고 이번 전시회의 기획에도 반영한다. 아이래시 레이스는 원단의 단에 아이래시(속눈썹)와 같은 의장을 하였다. 유럽의 리바 레이스를 이미지하였다고 한다.

高橋織物(滋賀縣)은 高島 산지의 전통 공예, 측면 제조 기술을 베이스로 면 강연사에 의한 다채로운 원단 표면을 갖는 텍스타일 제조를 특기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텍스타일 개발의 방향성이다. 판로별로 최적인 텍스타일 제조를 유연하게 하여 독자성이 높은 기획을 계속적으로 내놓아 간다.

이번 전시회는 강연사 직물을 무지, 프린트, 선염 을 아이템으로 전시한다. 또, 東海染工과의 컬레버레이션 기획을 공개한다. 이러한 컬레버레이션에 의하여 가공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고 한다.

유니온디자인(大阪府)은 해외로부터 가지고 들어 온 원단의 도안이나 트렌드에 즉응한 컬러 파레트를 전시한다. 컬러 파레트는 연 2 회 갱신하고 있어 계절별로 유행 색 144 색을 예측하여 수록하고 있다.

동사는 물건 만들기를 하지 않고 원단 기획만을 판매한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다. 해외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사들인 텍스타일 디자인을 국내의 업자에게 소

개 판매하는 업무를 30년 전부터 이어 오고 있다.

프리뷰전에 대한 참가는 이번 전시회가 처음이다. JC 본 전시회에는 과거에 여러 번 참가하였으나, 그것은 동사가 연 6회 열고 있는 전시회에 고객을 유치하는 프로모션의 의미가 강했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부터 프리뷰전에 참가함으로써 원단상이라든가 어패럴 등 신규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21.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독자 개발

가게야마(兵庫縣)는 주력인 캐주얼 셔츠지를 중심으로 한 오리지널 개발 상품을 메인으로 내 놓는다. 다양한 2중 거즈 워셔나 피시 도비 등 자사 리스크로 상시 250 무늬 정도 준비하여 다채로운 선염 직물이 강하다.

피시 도비는 여유가 넘치는 텍스타일이다. 도비로 물고기 무늬를 표현하고 물속을 헤엄치는 듯한 표정이 즐겁다. 경사/위사로 배열하여 보더/스트라이프 모두 대응할 수 있다.

JC 프리뷰에서는 회를 거듭하여 해외를 포함한 신규 거래선을 넓혀 왔다. 250 무늬의 현물로부터 1 필이라도 신속하게 내는 신속한 기동력이 평가되고 있다. 남성 주체이지만 긴밀하게 의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여성에도 대응한다고 생각한다.

安部吉(山形縣)은 실크를 중심으로 한 천연 소재로부터 화합섬에 이르기까지 선염, 후염을 불문하고 폭 넓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광택감, 드라이 터치, 가벼움 그리고 봄맞이의 차가운 기후를 고려한 따뜻함을 키워드로 제안한다. 양모 혼방이나 큐프라 혼방, 나일론 혼용 등의 자카드 약 30 점을 메인으로 내 놓는다.

프리뷰는 3 번째 참가이다. 도매상이나 상사 등 기존 거래의 확충과 신규 확대에 대응을 느낀다고 한다. 금후에도 가치관의 편차를 누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도매상, 상사의 경유로 판매를 확대한다.

무스미텍스타일(石川縣)은 여성 의류 전 아이템에 대응하는 니트 소재를 다룬다. 미들 게이지로부터 하이 게이지에 이르기까지 무지를 시발로 컴퓨터 자카드 등 다채로운 배리에이션으로 토탈 제안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시폰풍의 니트의 가공 배리에이션이나 면 복합 소재를 중심으로 내 놓는다. 사가공 개발로부터 패브릭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 체제, 소르트, 단납기 대응력이 우수하다. OEM 제품 전개를 포함하여 미세스에 가하여 캐리어

로 확대한다.

중양모직(愛知縣)은 모헤어를 시발로 캐시미어나 알파카, 카멜 등 고급 수모 혼용 소재를 주체로 원사로부터 신사, 여성 직물, 니트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전개하고 있다.

신사에서는 모헤어의 흡습·속건성을 살린 장마-한여름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내 놓는다. 20% 전후의 낮은 혼용률로부터 100% 사용까지 다양하게 준비한다. 신규로는 남성다운 소재를 요구하는 여성 어패럴로 늘리고 있다.

여성에서는 경사에 나일론, 위사에 울 모헤어라든가 마를 사용한 소재를 중심으로 가볍고 얇은 파인 타임을 제안한다. 棟生에서 제직하고 尾州에서 정리 가공한 것이 주로다. 자카드에서의 풍부한 제직 표현이라든가 우셔 가공 등의 후가공물까지 다채롭다.

신사, 여성 모두 지금까지 착실하게 거래선을 확대하여 왔다. 원사로부터 일관 생산 체제에 의한 독자 개발을 베이스로 확대 판매한다. 📖